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5호 [부제 제25468호] 주제 105 (2016)년 11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동해전역에 떠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 이십여일동안에 9만여t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 19일 오늘현재 연간물고기잡이목표 147%계선 돌파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도루메기 집종어로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은 11월 19일 오늘현재 지난해 집종어로전투기간에 잡은 수량보다 두배나 되는 9만여t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10만t 목표를 향해 계속 돌진하고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윤례에 동해전역에 떠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은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군민에게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인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인 육군상장 서후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첫 폐지를 쓴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는 자신과 깊은 정을 맺은 곳이라고,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싶어 또다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배전이 법지게 물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와 한창 하북작업을 하고있는 고기배 <단풍1-03>호에 오르시어 어로공들의 고기비늘들은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그들과 허뿔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쩔바를 몰라하는

어로공들을 만나주시면서 추운 날씨에 날바다에 나가 수고들이 많다고, 물고기를 잡고 오늘 새벽에 물어왔는데 힘들지 않는가, 예로되는것은 없는가 일일이 물으시면서 그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였으며 <단풍>호고기배의 고향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에서 마련해준 고기배가 온을 내게 해야 한다고, 물고기잡이

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말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 및 저장실래, 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행동처장고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물고기관들을 살펴보기도

살아보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들에 나가 보면 어디서나 이런 호젓한 풍경을 볼수 있다고, 8월 25일 수산사업소 행동처장고도 리져나가도록 물고기들이 딱 차있는데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가공장에서 일손을 다치고있는 어로공들의 안테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남편들은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안테들은 가족소대를 못고 경쟁적으로 물고기가공전투를 벌리고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배아려주시였다.

절임창고에 들리시어 물고기연기가 배어있는 절임랑크럭에 스팀없이 앉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에도 물고기가 가득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초급동 및 행동시설들을 더 갖추어놓고가공공정의 기계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신선한 물고기를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해주라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잘 먹이는 일인데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예로되는 문제를 모두 풀어주겠으니 그저 물고기만 평평 잘으라고 당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